



크리에이티브지원팀의
 플라워 박스 만들기
꽃을 담다
봄을 담다

진행 김건희 / 글 김건희, 정홍석 / 사진 김홍규, 장서우



5월은 별명이 참 많다. 감사의 달, 가정의 달 등등.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연인들끼리 사랑의 표현으로 장미꽃을 주고받는 날인 로즈데이(5월 14일)가 있다. “돈 나갈 일만 많다”며 불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꽃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별명이 많은 5월엔 더욱 그렇다. 그래서 《교원가족》은 크리에이티브지원팀과 함께 플라워 박스 만들기를 통해 ‘같이의 가치’를 느껴보기로 했다. 이번엔 특별히 한일섭 팀장이 고생하는 팀원들을 위해 직접 신청해 의미가 남달랐다.

어느 봄날, 김윤경 과장, 전상훈·조종태·홍유중·이주현·조아라 사원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공방으로 향했다. “꽃을 앞쪽으로 배치하고 기울어지게 꽃아야 예뻐요.” “즐거는 사선으로 잘라야 물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인 꽃꽂이에 들어갔다.

모두들 처음 꽃꽂이를 한다며 어색해했지만,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갔다. 김윤경 과장은 “꽃이 나를 보게 꽃아야지~!”라며 옆에 앉은 남자 후배들을 도왔다. 홍유중 사원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꽃꽂이에 심취했고, 조종태 사원은 까무잡잡하고 긴 손가락으로 섬세하게 작업에 임했다. 이주현 사원은 아내를 생각하는지 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전상훈 사원은 “정리병이 있냐”는 말에도 완벽한 동형태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날 강사가 선정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조아라 사원의 플라워 박스였다. 본인도 몰랐던 꽃꽂이 실력을 선보인 막내의 저력이 돋보였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준 크리에이티브 지원팀. 모두들 꽃길만 걷길 바라요~!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워보니
꽃의 배치부터 높낮이까지,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네요.
그래도 도와주신 덕분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전상훈 사원



처음 해봐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든 플라워 박스는
집 창가에 올려두고, 매일 출근할 때 보고 있어요^^
오래도록 잘 보관하려고요!
홍유중 사원



바쁜 일상 속에서
팀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좋았습니다!
제가 만든 플라워 박스를
아내에게 선물하니
무척 감동받더라고요.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이주현 사원

평소 꽃에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라,
플라워 박스 자체가
무척 생소했어요.
하지만 직접 참여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조종태 사원



타이핑 소리로 가득한
사무실을 잠시 벗어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팀원들과 함께한
어느 봄날의
'뜻밖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윤경 과장



평소 꾸미는 것과
거리가 먼 저와 잘 맞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무척 재미있었어요.
완성된 플라워 박스를
어머니께 드리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정성 가득한
꽃 선물을
받아보고 싶어요!
조아라 사원

도요새 영어, 증축기에 이어 스마트 빨간펜, 영래스쿨까지...
원름 없이 쏟아지는 업무에 지친 만도 한데,
항상 밝은 미소 잃지 않는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따뜻한 분처럼 활짝 웃는 꽃처럼,
여러분도 신이나 따뜻한 마음으로 활짝 웃으시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티브지원팀
한일섭 팀장

《교원가족》이 추천하는 5월의 꽃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프라이드오브제인장미
서양을 대표하는 꽃 중의 하나인 장미. 장미는 품종개량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핑크빛의 '프라이드오브제인장미'는 5월의 봄 향기와 무척 잘 어울리는 꽃입니다. '행복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보세요!

수국
수국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수국은 물을 좋아해서, 관리만 잘하면 다른 꽃들에 비해 비교적 오래 볼 수 있어요. 수국 특유의 화려한 색감은 다른 꽃들과도 잘 어울려서, 플라워 박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답니다.

카네이션
5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꽃을 꼽으라면, 역시 카네이션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여러 색상 중에서도 레드·핑크·버건디 카네이션이 인기가 많아요. 5월에는 부모님을 위해 카네이션 한 송이 어떨까요?